

사회

외국 체류 영유아·교사 허위 등록 보조금 빼 돌려

불법 판치는 광주·전남 어린이집

감사원, 무더기 적발... 담당 지자체는 뒷집만

# 광주·전남 한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를 허위등록하거나 퇴직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3535만 9000원을 부당 수령했다. 하지만 서류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보조금 반납명령만 한 뒤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보육시설들은 외국에 체류중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신규 등록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했다.

두 13개소의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보고하거나 실제근무하지 않는 시설장이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이 부정 수령한 금액만도 모두 7000여만원에 달했으며 목포의 한 어린이집은 시설장을 허위 신고해 6개월 동안 12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광주시 광산구의 441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39.5%인 174개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제공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39개소의 어린이통학버스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신고된 것으로 등록돼 있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3일 광주시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큰잔치'에서 한 어린이가 할머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정을 나누고 있다. /김경인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취약지역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 지원대상 1순위인 무안군에서 어린이집 신축을 포기하자 광양시의 한 어린이집에 2억97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연합회로부터 이미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복지원을 받았으며, 전남도는 차순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겼다.

광주·전남 보육시설들이 보조금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보육지원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62개소, 전남 99개소 등 모두 161개소의 어린이집들이 외국에 체류중인 영유아들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다.

감사원은 13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조치를 명령하고 26개소에 대해서는 환수와 함께 영영정지

영광원전 6호기 핵연료봉 결함

원자로 냉각재 방사능 준위 상승

안전성엔 문제 없어

영광원전 6호기의 핵연료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그러나 원자로 가동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원전은 3일 "지난달 30일부터 정상운영 중이던 6호기의 원자로 냉각재 방사능 준위가 상승해 분석한 결과 핵연료봉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광원전은 현재까지 6호기 핵연료봉에 들어있는 세슘과 아이오다인(요오드)의 농도가 허용치의 500배의 1정도에 불과해 원자로 가동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광원전은 6호기 연료결함에 대비해 방사능 분석주기를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원자로 냉각재 정화유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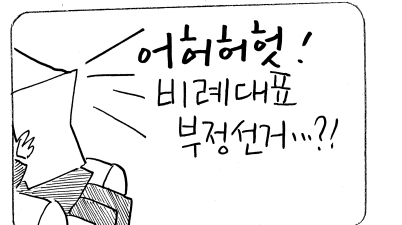
기준 보다 증가시켜 운전하고 있다.

영광원전측은 "현재로서는 발전소 내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원자로 냉각재 연속 방사능 감시장치를 통해 방사능 추이를 상시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원전은 또 예정된 목표 기간까지 6호기의 정상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11월에 예정된 계획예방 정비 기간에 정밀검사를 통해 핵연료봉 결함 부위를 조치할 방침이다.

핵연료봉은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 막대모양으로 성형 가공한 연료봉으로 핵연료를 막대형 피복재로 포장했으며 영광원전 6호기에는 4만1772개가 들어있다.

한편 영광원전에서는 지난 2009년 1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4호기에서도 핵연료봉 2개가 파손된 채 발견됐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공무원 폭언 군의원 벌금형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3일 화순군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문모(48) 의원(본보 2011년 7월22일자 1·3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7월20일 오후 5시40분경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인사안에 대해 군청에 재협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순군 행정지원과 안모(58) 과장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 의원은 화순군의회 조모(58) 의장과 함께 안 과장의 사무실을 향의 방문해 책상 가림막을 발로

차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조 의장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처사 수용했으나 문 의원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의원은 "의회 사무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추천권이 무시되자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자와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인으로서 진지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에도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화순군청 공무원을 폭행한 화순군의회 정모(53)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직위를 상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인 불법 녹취 최경주씨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지난 2일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인찰비리와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최경주 전 통합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경찰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30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가드레일 들이받은 만취 경찰 파면

○진도경찰은 3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모 파출소 소속 황모(44) 경사를 파면 조치.

○황 경사는 지난 달 28일 새벽 1시경 진도읍 진도를 포산리 소방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황 경사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다고 사경을 면 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소방파출소 직원들에게 붙잡혀 인근 파출소에 인계.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ark@

"엄마~ 30년만에 불러 봅니다"

광주서 태어나 스웨덴 입양 두 자매 경찰·외국 방송사 도움 가족과 상봉

"우리를 외국 입양시킨 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자매가 3일 경찰과 외국 방송사 등의 도움으로 30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지난 1982년과 1983년 각각 스웨덴으로 입양됐던 김은숙(30)·정선(29)씨 자매는 이날 광주시 서구 상촌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모(62)씨의 품에 안겼다.

출생과 동시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던 김씨 자매는 나이가 들면서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한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낯선 땅에서 서서 버텨왔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리움은 한시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매는 스웨덴 한 방송사의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보냈다.

방송사와 김씨 자매는 입양서류를 바탕으로 광주의 한 산부인과와

본적지인 담양까지 찾아가 흔적을 뒤졌다. 결국 방송사는 헤어진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네덜란드 방송사 한국특파원에게 가족 찾기를 의뢰했고 이 특파원은 광주서부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부경찰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와 함께 김씨 자매의 어머니인 이모(62)씨가 서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어머니는 "내가 버린 딸들과 마주 할 수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지만 경찰의 설득으

로 김씨 자매는 품에 또 그리던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됐다.

두 자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십년이 지나서야 다시 고향 땅을 밟았는데,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경찰에 너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입양 보낸 두 딸을 평생 가슴에 묻어 놓고 아무 말도 못했다. 잘 자리워서 고마울 뿐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www.yjcdive.co.k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olice academy building and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sign that says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A cozy school campus like a park). Below the image are images of various vehicles: a truck labeled '트레일러', a bus labeled '대형', a car labeled '1,2종 보통', and a motorcycle labeled '2종 소형 (오토바이)'. The text '문자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ull license by text! Not a choice, but a necessity) is prominently displayed.

Advertisement for 'www.yjcdive.co.kr' with the headline '문자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ull license by text! Not a choice, but a necessity). It lists features: '광주 최대의 규모' (Largest scale in Gwangju), '깨끗한 환경' (Clean environment), and '친절한 강사진' (Friendly instructors). It mentions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Conducting self-exams on campus and road 5 times a week with vehicles trained at the academy). It lists course details: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Morning, night, and weekend classes),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예정' (Additional tax on tuition from July 2012), '• 교재무료 배부' (Free textbooks), '• 셔틀버스 운행' (Shuttle bus service), and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Tuition increase expected from November due to road driving exam strengthening). It shows images of a car, a truck, and a motorcycle. At the bottom, it says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Jueungjin Motor Vehicle Driving Specialized Academy) and provides the location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and phone number '☎062-951-5100'.